

교회 목표

신성한 예배
찬구일론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전교
아름 사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주간 충현

대한민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서문동 665-1 ☎ 02-552-8200 © 2005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개머, 이 말씀을 들으라! (금요일)

하나님의 편재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께서는 우주 밖에 계신 것을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우주가 창조된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주 안에 계신 것도 살펴 보았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무한한 것 같은 우주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으며 또한 우리는 시공간 안에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또 우주와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계신가를 이해할 수 없음을 살펴보았다. 이제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재하심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가 곳곳에 계시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The whole of God).

하나님의 살아 계시는 실질적으로 하늘과 땅을 채우며 거리에 상관이 없으시다. 인간은 숨길 수가 없다(렘 23:23-24; 왕상 20:28).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친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라"(신 10:14). 다윗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한다. 즐거운 소리로 공교하게 연주 한다(시 33:5-9).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모든 것은 그에게 속하였다. 그러나 피조된 것들은 하나님을 응답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어떤 공간도 하나님을 응답하거나 답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우주 공간을 채우시는 것도 사실이다. 솔로몬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지으며 고백한다(왕상 8:27). 여러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편재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온 천지에 임재하심에 대해 인간의 지식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시 139:2-10).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나 계시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음부까지 계신다고 성경은 언급한다(시 23:4).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하늘과 바다와 우주의 구석구석에까지 뻗어 있다(시 43:2).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하늘 위와 땅 아래에도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편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또 아들은 이들을 충만하게 하신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엡 1:23). 구석구석 필요한 곳에 충만케 하시고 편재하신다. 땅과 하늘에서 같은 뜻이 이루어짐을 묘사하시는 예수님이다. 하늘과 땅과 성도가 있는 곳에 편재하신다(마 18:18-20).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성도들에게 안위를 주신다(마 28:20). 또한 주님은 만물을 불드시고 계신다(히 1:2-3).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불드시기 위해서는 늘 어느 곳이나 계시어만 한다. 성령님께서도 또한 어느 곳이나 계신다(시 139:7). 주의 백성들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된다. 놀라운 기적이다(고전 6:17, 19; 엡 2:22).

이와 같이 삼위일체는 어느 곳이나 항상 한 하나님으로 계신다. 다른 두 분이 없이 한 분만 계시는 곳이 없다. 하나님 전부가 어느 곳이나 늘 계신다. 하나님이 그의 창조를 통하여 흐트러지고 부분이 나뉘어져서 여러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과 아들과 성령님으로 항상 어디나 늘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법신론에서 주장하는 것과 잘 구별해야 한다. 법신론에서는 창조주와 창조물을 잘 구별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자연이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자연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포함된 것도 아

니고 거하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채우시지만 하늘과 땅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과 같다. 우상을 가려내야 한다. 스테판은 이것을 지적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편재성을 곡해하고 있었다(행 7:41-43; 왕하 21:3, 5; 암 5:25). 자신의 명예와 축복과 세상의 권위를 함께 얻으려고 하였다.

하나님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고 또 세상의 것들과 분리되어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언급한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 안에 내재하시지만 동시에 이것들 위에 초월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곳, 어떤 위치라도 하나님과 더 이상 멀고 가까운 곳은 있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은 내 안에까지도 계신다. 또한 크거나 작거나 어떤 조건이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부여할 수 없으며, 그 무엇이든 하나님을 저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주의 어느 곳에서도 언제든 계시고 행할 수가 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므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사 103:11-12). 하나님께서 그의 속성을 활용하실 때 모든 것이 동시에 영향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아래, 안팎으로 계신다. 그러나 그 안에 갇힐 수도 없으며 또 밖으로 제외될 수도 없다. 즉,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것을 보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위에서 하늘을 내려다보실 수도 있고 또 아래서 하늘을 위로 쳐다볼 수도 있다. 우리와 같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3차원의 세계 안에 있는 모든 부분을 공정하게 보실 수가 있다. 아멘.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요일 5:21)

다음 주일(18일)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약진은 들든 기분을 가질 수 있었지만, 보혈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은 다음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는 곳에는 항상 우상숭배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송이 우상을 만들어 섬겼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까(출 32:4). 이후 사사시대에도 우상숭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사 21:12).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대왕 5:9). 예수님께서 골라치며 시험 받으실 때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마 10:4).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지시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골 1:7).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떠한가요? 때때로 이스라엘의 행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추석과 같은 민족 고유의 명절에 소위 도덕과 예를 강조하며 초상인 섬기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됩니다.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아덴을 향해 몸뚱이 거룩한 본 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행 17:16). 또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도 새겨야 할 것입니다(엡 5:5). 따라서 보혈의 은총을 입은 신자들의 추석은 말씀인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가장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느님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전 10:14).

*추석 가정에 모범은 4편을 참조하세요

*이번 주 수요일(14일)은 교회주변 총력 전도의 날, 오전 11:00, 수요일 예배로 시작

CHRISTIAN SECRET

“as sorrowful yet always rejoicing, as poor yet making many rich, as having nothing yet possessing all things.” (2 Corinthians 6:10)

To be sure, the Christian life, especially as documented in the Book of Acts, is difficult, demanding, and very often dangerous. The apostles and disciples suffered terrible persecution, endured great stress, and faced depressing hardships. Yet, as Paul mentions in today's Bible verse, in everything servants of God commend themselves "as sorrowful yet always rejoicing, as poor yet making many rich, as having nothing yet possessing all things"(2 Cor. 6:10). This is the Christian's life secret!

Paul wrote to the church at Rome, "I am telling the truth in Christ, I am not lying, my conscience testifies with me in the Holy Spirit, that I have great sorrow and unceasing grief in my heart"(Rom. 9:1&2). He experienced much adversity and turmoil living in Christ. He told the Corinthian church, "Five times I received from the Jews thirty-nine lashes. Three times I was beaten with rods, once I was stoned, three times I was shipwrecked, a night and a day I have spent in the deep. I have been on frequent journeys, in dangers from rivers, dangers from robbers, dangers from my countrymen, dangers from the Gentiles, dangers in the city, dangers in the wilderness, dangers on the sea, dangers among false brethren; I have been in labor and hardship, through many sleepless nights, in hunger and thirst, often without food, in cold and exposure. Apart from such external things, there is the daily pressure on me of concern for all the churches"(2 Cor. 11:24-28). His outer-physical and inner-spiritual afflictions were immense, but because he found the secret of happiness, he was able to express joy in the midst of sorrow, pain, and suffering. Indeed, he was sorrowful, yet always rejoicing; poor, yet able to make many rich; having nothing, yet possessing all things. How can that be?

The Christian secret is in knowing Jesus forgives and cleanses your sins. If you believe in Jesus Christ, He forgives your past. 1 John 1:9 says,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righteous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Jesus took the cross, denying Himself everything. His sacrifice made it possible for humans to confess Him as their Lord and Savior, surrender themselves as sinners, ask for forgiveness, and receive new life. Psalm 32:1 reminds us, "How blessed is he whose transgression is forgiven, whose sin is covered!" The reason human life is so awful is because of Adam and Eve's sin. When they went against God, sin, with all its dreadful consequences, entered the human race and the world in general. Before their sin, they enjoyed perfect harmony with God, but afterward that relationship was broken and death took its place. Jesus came to restore our relationship with God, and give us eternal life. His forgiveness cleanses us and changes us into newborn Christians-children of God. For now, the devil controls this earth and human life is difficult, but only for a short time. Believers have eternal life with the glory of God, all because Jesus forgives and cleanses their past here and now.

The Christian secret is in knowing the Lord God always leads and watches over His children. He is our eternal refuge, "The eternal God

is a dwelling place, and underneath are the everlasting arms; and He drove out the enemy from before you, and said, 'Destroy'"(Dt. 33:27)! This earthly life is uncertain, filled with arguments, battles, and trials, but Jesus is our Shepherd. In his most beautiful song of trust, David pictures the Lord as the great shepherd who provides for and protects His sheep,"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in the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Ps. 23:1-4). Paul asks, "What then shall we say to these things? If God is for us, who is against us?"(Rom. 8:31). The Lord will protect and lead you through this life. Please do not put your trust in stupid earthly things, "Make sure that your character is free from the love of money, being content with what you have; for He Himself has said, 'I will never desert you, nor will I ever forsake you,' so that we confidently say, 'The Lord is My Helper, I will not be afraid. What will man do to me?'"(Heb. 13:5-6). Jesus is unchanging,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So, do not be carried away by varied and strange teachings; "for it is good for the heart to be strengthened by grace, not by foods, through which those who were so occupied were not benefited"(Heb. 13:9). You need to be careful that the daily toils of life, food, shelter, and clothing, do not bother your faith. Jesus will provide everything you need. He will lead and protect you to the end of your life. He will always be with you.

The Christian secret is in knowing your future is clear and beautiful. Jesus said,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dwelling places;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for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Jn. 14:2). There is no need for you to be afraid, but there is great need for you to be faithful and believe in Jesus. Paul told Timothy, "In the future there is laid up for me the crown of righteousness, which the Lord, the righteous Judge, will award to me on that day; and not only to me, but also to all who have loved His appearing"(2 Tim. 4:8). Paul reassured the Corinthian church, "For we know that if the earthly tent which is our house is torn down, we have a building from God, a house not made with hands, eternal in the heavens"(2 Cor. 5:1). John mentions, "Beloved, now we are children of God, and it has not appeared as yet what we will be. We know that when He appears, we will be like Him, because we will see Him just as He is"(1 Jn. 3:2). Such a clear and perfect picture of your future can only fill your heart with joy.

Right now, things look sorrowful, but you can still rejoice. Paul considered the sorrows and sufferings of this present time "not worthy to be compared with the glory that is to be revealed to us"(Rom. 8:18). Knowing Jesus forgives your past, protects and guides you in your daily life, and is preparing a heavenly eternal home just for you, is the Christian secret to a happiness that overcomes and endures all things. I hope you know Jesus as your Lord and Savior, so that you can experience the joy of His amazing love. Amen. 

다음 주일 설교

그리스도인의 비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후 6:10)



김성원 목사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험난하고, 많은 희생이 따르며 반복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삶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산한 박해를 겪었고, 엄청난 심적 부담을 감아냈으며, 절망적인 난관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후 6:10)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바울의 비밀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다음과 같이 편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라”(롬 9:1,2).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많은 역경을 겪었고, 소동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갇힌 때를 다섯 번 맛보았으며 세 번 태깅도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피난하는데 일 주야를 감옥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도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 하고 주리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후 11:24-28). 그가 겪었던 육체적인 어려움과 내면의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정한 행복의 비밀을 발견했기에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바울은 참으로 많은 슬픔을 겪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슬픔 중에도 항상 기뻐했고, 가난했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했으며, 아무 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죄 사람의 비밀

그리스도인의 비밀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케 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데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과거를 용서합니다. 요한 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모든 인류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은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확인시켜 줍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인간의 삶이 이토록 비참해진 것은 아담과 이브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항했을 때 죄가 인류와 이 세상에 침투했고, 그로 인해 참으로 두려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인류는 하나님과 완벽한 조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후 그러한 관계는 깨어져 버렸고 그 대신 죽음에 끼어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용서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험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동안에 불과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든 과거를 용서하시고 깨끗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동행의 비밀

그리스도인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항상 인도하시고 지켜보신다

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안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신 33:27) 이 땅에서의 삶은 불확실합니다. 다투고 전쟁, 시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시에서 주님을 향해 양떼를 먹이시며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라고 노래합니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시 23:1-4). 바울은 이처럼 반문합니다. “그러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롬 8:31). 주님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을 사랑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히 13:5,6). 예수님은 분명하십니다. 언제나 오늘날이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다른 가르침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마음은 온애로써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써 할 것이 아니라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히 13:9). 우리는 일상의 여러 가지 노고와 양식, 집, 옷과 같은 것들로 인해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생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미래에 대한 비밀

그리스도인의 비밀은 우리의 미래가 아름답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요 14:2).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만이 필요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8).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냐”(고후 5:1).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요일 3:2). 이처럼 분명하고 확실한 미래가 있기에 우리의 마음은 늘 기쁨으로 뛰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우리가 겪는 슬픔이나 고통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쯤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한바(롬 8:18).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모두 용서하셨다는 것,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또한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모든 역경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닌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 사랑과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

추석 가정예배 모범

“돌이켜 떠나라” (설교문)

“그러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겔 14:6)

◆ 찬 송..... 410장..... 다 같 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 성경봉독..... 예스겔 14:6..... 다 같 이

◆ 말씀선포..... “돌이켜 떠나라”..... 인 도 자

◆ 통성기도..... 다 같 이

◆ 찬 송..... 326장..... 다 같 이

◆ 주기도문..... 다 같 이

본문 말씀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자신들의 죄에서 떠나라고 권고하십니다. 이러한 권고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모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인 에레미야, 이사야, 예스겔을 보면, 이들이 ‘회개할 것’과 죄에서 ‘돌이켜 떠날 것’을 부르짖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성경에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에 의해 동일한 음성들을 듣게 됩니다.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외쳤습니다(마 3:2).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 4:17).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정결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변화된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급격하게 우리의 태도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뜻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이며,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의 첫 걸음은 구원이며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길은 열립니다. 참된 회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는 탄식과 진한 슬픔이 있지만, 그 후에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길로 돌아올 때,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적인 눈은 예루살렘과 실제적인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사 33:20 21). 그러나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극한 슬픔 가운데 빠질 것이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욕망이 되어 영혼 속에 자리잡을 것입니다.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하지 않는 죄는 그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노력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회개는 죄에서 멀어져서, 주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고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우상들(돈, 위선, 권세, 등)을 외면하며, 당장에 자신들의 모든 죄로부터 얼굴을 돌리라고 부르십니다. 그의 음성은 긴급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지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다른 주인을 섬기는 자도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죄로부터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맞이들이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위임목사님)

장로 칼럼

기도에 힘쓰는 18교구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자비(롬 5:10)와 연약한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시려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사랑(눅 6:13)은 저희들의 한계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라는 말씀처럼 18교구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구는 용인시를 지역으로 삼고, 이곳으로 이주해 온 230세대(633명)를 7개 지역 32구역으로 구분하고 93명의 일꾼들이 교구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행 2:42)를 표어로 삼고 새해 첫 주 토요일 기도원에서의 일일 영성훈련은 저희 모든 교구 가족들의 영적 각성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고히 세우며 한 해를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말씀, 기도, 찬송, 전도 네 바퀴로 복음의 길을 따라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저희들은 예배와 공집회, 교회주변 전도, 단기 선교, 자원 봉사, 이웃 사랑의 실천을 부득이 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직 즐거운 뜻으로(벧전 5:2) 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마음을 닦기 위해 십자가만을 붙들며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마음을 갈아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빌 2:2). 지난 2월에 이은 6월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교구 가족들의 하나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6월 17일 청지기 훈련을 제1가 가족 복음화 전도 집회로 정하여 온 가족이 함께 청지기 훈련에 참석하였고, 특히 남

자 성도들이 말씀으로 깨어지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청지기 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교구 가족들을 위해서 7월 24일에 실시된 제2가 가족 복음화 전도 집회는 복음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0월 28일에 있을 청지기 훈련을 3차 집회로 준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에도 온 힘을 다하여 8개 팀(85명)과 타 교구 지원, 탐정(16명) 등 모두 101명의 준원들이 은혜 중에 사역을 마쳤습니다. 이 외에도 교회주변 전도, 자원 봉사와 어려운 교구 식구들을 돕는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금요집회와 수요일예배(영성 훈련)로 복음을 새기며 지역 모임과 구역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로 하나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일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은 교구 가족들의 영적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받음을 교구 가족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1)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합하여 “가족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 2)남성 구역 예배 부흥, 3)청지기 훈련에 참여했던 모든 교구 식구들이 금요집회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풍성하게 사랑하는 (살후 1:3) 교구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롬 12:12).



강철형 (18교구장)

살아 계신 하나님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사막으로 이동했다. 선교를 가기 전 사막에서 사역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일반 호텔에서 묵으면서 차를 타고 매일 사막으로 들어갔다가 밤이 되면 돌아오는 방식으로 사역을 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직접 가 보니 그것이 아니었다. 선교지는 전 국토의 95%가 사막이었고 우리가 사막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그 넓은 사막 중에서 한 곳을 지정해 그 사막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였다.

우리가 처음 도착한 곳은 황량한 광야였다. 양털으로 돌산이 있고 그 가운데로 길이 있었다. 우리의 숙소는 바로 그 길 위였다. 길이라 하면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덮인 곳을 떠올렸지만 사막에서의 길이란 모든 땅을 일컫는다. 내가 밟고 걸아가는 곳이 바로 길이 되는 것이었다.

둘째 날부터 유일한 교통 수단인 낙타를 타고 사막 이곳저곳을 이동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전했다. 현지인들은 문명 세계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다. 주님을 알지 못 하고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사역을 하며 점차 느낀 것은 주님도 그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였다. 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셨고 그것을 생각할 때 그들에게 더욱더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3일간의 사막 사역을 끝내고 토요일에 시내로 들어가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대학교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들은 사막의 젊은 이들과는 아주 달랐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았다. 그러나 종교로 인한 제한된 문화가 있었고, 어떤 젊은이들은 그런 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하였다. 그들과 깊은 대화를 하며 이메일 주소를 교환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비록 그들이 복음에 대해 수용적이지는 않았지만 전하면서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디더이 사막 마지막 날이었다. 그날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머리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였고 구원의 확신을 거듭 설명해 주었다.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마음에 뜨거운 감동으로 다가왔다. 성령님께서 함께 일 하심을 알려 주셨다.

실제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다.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지만 삶의 희망과 기쁨이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 팀원들은 다 함께 기도했다.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틈이 나면 성경을 보고 이동할 때면 찬양을 드렸던 우리 선교팀 모두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성령님께서 직접 하시는 사역을 눈앞에서 목도할 수 있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이번 선교를 통해서 경험했다. 또한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확신하였다.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는 전하고 그 이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기로 했다.



백경진(대학부)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9월 15일(목) - 9월 20일(화)	유이부	이서영	9월 16일(금) - 9월 24일(목)	청년2부	정재영
9월 15일(목) - 9월 20일(화)	청년1부	문은식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9월 5일(월) - 9월 13일(화)	청로1	김건근	9월 6일(화) - 9월 15일(목)	8교구 추가	김해길
9월 6일(화) - 9월 14일(수)	청로2	김민수			

▲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8월 30일(화) - 9월 6일(화)	17교구 1지역	한승조	8월 30일(화) - 9월 6일(화)	8교구 9지역	이인원

성령의 능력

도착한 첫날부터 40도가 넘는 더운 날씨에 육신은 힘이 들었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침과 저녁 경건의 시간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며 전 대원이 한 마음이 되어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사역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을 모아 주었고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을 따라 영접기도를 하였으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팀원들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온 나라에 우상이 가득하며 사단의 착고에 매여 있는 저들, 정말 불쌍한 영혼들인데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들을 복음에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학교 선생님을 만나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영접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 중에 찾아간 마음에는 고아원이 있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부흥회를 하듯 전 팀원들이 찬양하며 말씀을 전하고 영접기도와 그 영혼들을 위한 합심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병든 어린이 아이를 위해서 그 부모가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가는 곳, 머무는 곳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들기 위하여 모여 들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이도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팀원들은 사역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외치고 전했습니다.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진히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전한 마음마다 속히 교회와 세워지고 사역의 사랑에 묶여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는 저 불쌍한 백성들이 천국의 비밀과 그 말씀들을 배우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새롭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고전 2:4).

양승남 (인사, 13교구)

간절히 기도하며

새벽 3시 공방에 도착하여 질척같은 아들을 들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도착에배 후, 피곤한 중에도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주님께 두 손을 모았습다.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갈 곳과 주님의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을 주경하여 달라고 간구하였습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경건회와 평가회를 통하여 사람의 겉모습과 우리들의 편향된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행위와 수고함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하며 팀원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언어와 외모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 자매로 그들을 깨어오며 그들의 깊은 눈 속에 들어가 사랑하고 기뻐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사역지로 출발하기 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찬송가 400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굳기'와 '내가 나와 함께 하리라, 나는 내 것이라, 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말씀 전하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니라'라는 말씀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 11명의 팀원과 새로이 하나님을 영접한 12번째 팀원인 온전 기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온전하여 인도한 곳은 어디에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이 기다리고 있었습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접하고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과 감사함을 저희 팀에게 주셨습다.

그러나 이때 저희 팀원들을 향한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서 노상에서 주저앉고 갑자기 허리 통증으로 꼼짝할 수가 없는 팀원, 점심 때 얼굴에 두드러기가 나고 또 온 몸에 열이 나는 팀원, 마음에 성령이 생긴 팀원 등, 사단은 약한 곳이 있으면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끼어 들었습니다. 우리는 "더욱 기도하라"는 명령임을 알고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다. 순간 모든 어려움은 회복되었고 눈물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였습다. 저희 팀원들의 행동과 믿을, 이 모든 것이 선교지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참사랑을 절실히 깨달았습다.

배종득 (집사, 14교구)

보시기에 좋았던 빛들은

머칠제 비가 내리
물로 채워진 땅들이
바다와 함께 누워
맨 처음 지으신 이의 체온을 기억해 낸다.

이방인들끼리 모여
서툰 언어로 기도하다가
가까이 다가가 가슴으로 만져 보면
아직도 잠든 대지는
갑갑 무게로 덮여 있고

땅 밑에선
가없고 착한 꽃들이
어둠을 안내하며
살을 부닌다.
눈빛을 확인한다.

보시기에 좋았던 빛들은
마물지 않고 나아가
어느 새, 수줍게 웃는 꽃들을 만난다.

몹시도 닳은 꽃들은
작은 틈새로 스며드는 소리를 듣다가

기어코 어둠을 밀어내고
산에서 들에서 겸손하게 일어선다.

마침내 빛은 선한 바람을 거느리고
새 하늘 새 땅에
싱그러운 꽃들을 넘겨쳐 재운다.

정운술 (집사, 18교구)

*선교 중 받은 은혜를 시로 표현하였습니다.

말·씀·묵·상

역대하 14:1-15

이 말씀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단된 후 르호보암, 아비아에 이어 아사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아사왕의 통치 초기의 행적이다.

2-7절 : 아사왕의 업적,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함, 우상 타파, 백성이 하나님을 찾도록 함,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함 →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심 → 왕권과 국력이 견고하게 됨 →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고백 : 믿음의 선순환.

아사에게 평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 그의 조부 르호보암, 부친 아비아 그리고 조모 마아가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간 계속하여 전국에 만연한 이방 우상의 영향과 세력이 매우 강하고 뿌리 깊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므로 우상을 제거하여 온 백성이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고 그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 임을 깨닫고 자신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힘을 사용하여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했다(7절). 결코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심에 대해 감사했다.

9-14절 : 구스 사람 세라의 침공과 아사왕의 승리, 아사는 절대 열세의 군사(58만) 세라의 100만 대군에 맞서서 승리하였다. 13장에 그의 아버지 아비아가 여로보암을 상대하여 비록 승리하였지만 그의 언설은 진정한 믿음의 발휘라기보다는 여로보암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적하여 전쟁에 임하는 병사들에게 용기를 주고 적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전쟁의 도구였다(하나님께서 범죄한 여로보암을 심판하시어 했기 때문에). 본문 14장에 나온 아사의 기도는 신자로서의 올바른 모범을 보여준다. 그는 세라와의 전쟁을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의 전쟁으로 인식했고,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그의 군대는 절대적 중과부적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둔다. 눈앞의 위기가 큰 승리로 변하여 통상한 전리품을 거두어 승리의 개선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은 구원의 큰 은혜를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는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안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아사왕도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다(대하 16 장). 말년에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역대하 14장과 16장의 모습처럼 처음과 끝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기도 : 매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이재호 (안수집사, 7교구)

새가족과 함께

...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

새가족 양육부는 20대 청년부터 (더 어린 학생들이 부모님과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소망부에 이르는 성도들까지 모두 전해진 교육 과정을 거친 후 각 부서로 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다는 부서와 달리 온 가족이 함께 양육받을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버지 이동희 성도, 어머니 우숙자 성도, 아들 이성훈 성도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 또, 어떤 예수님을 만나왔는지 소개해 드립니다.

이동희 성도가 가정의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는 부인 되시는 우숙자 성도께서 뇌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원복과에 계시는 전도사님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들었고요 합니다. 병원에 있을 때 계속 예배 드리던 중 수술과 치료에 끝난 퇴원을 하여 더 이상 병원 안의 교회에 다닐 수 없어 어느 교회로 가야할까 고민하던 중 우연히 10여년 만에 어릴 적 친구를 만나 그 친구분의 인도로 충현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새신자가 되면서 기도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동희 성도는 "충현의 만나"를 보고 가정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달라지는 것은 매일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기도 시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한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시험도 생긴다고 합니다. 이 가정의 가장 되시는 이동희 성도가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교회오기 위해 준비를 하다가 욕실에서 넘어져 눈이 찢어졌고 또 그 눈이 다 아물기 전에 방에서 넘어져 양쪽 눈을 다 다치기도 하셨습니다. 이 때

'마귀가 시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더욱더 열심히 다녔고 부인과 아들을 돌리려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우숙자 성도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물어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동희 성도는 70평생 살면서 남들 앞에서 눈물을 잘 흘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때 마음 속으로 많은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동안 지었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얻어서 기쁘다고 합니다. 이들을 보며 '정말 구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고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이동희 성도는 우습게도 안 되는 것을 예수님 힘으로 된다는 것을 충현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새 신자라고만 생각했던 분들이 매일매일 말씀과 더불어 가정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전하며, 시험이 올 때 그것을 더 견고한 신앙으로 바꾸어 가는 것들을 볼 때 먼저 신자된 저보다 더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로 신앙이라는 것은 남보다 새 신자같은, 처음 만난 그 긴장과 설렘 그리고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정리 / 오미라(새가족부)



교회 탐방 19 실로암 찬양대

심자가를 찬양하며

주님은 늘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그 은혜를 제하고 나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자... 수요일 저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실로암 찬양대원들. 그들을 만나보았.

실로암 찬양대

'실로암'이란 '보냄을 받았다(요 9:7)'라는 뜻으로 알바 성도는 물론 장로님·부목사님·사모님·예전도사님들과 같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윤석민 장로, 찬양대장)

찬양대장을 비롯하여 전임지휘자와 독창자가 봉사하는 곳으로서 음악적인 면에서 많은 도전과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오순도 안수집사, 배아소 파트장)

평일 저녁 6시부터 나와서 봉사를 한다는 것은 많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헌신한 일꾼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김중자 권사, 부대장)

실로암 찬양대를 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간증으로 고백하는 찬양을 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세영 안수집사, 총무)
가사를 암송하여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더 은혜를 받습니다. 심자가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하는데 다시 심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순도 안수집사)

때로는 가슴이 답답한 상태로 찬양대 연습에 때도 있지만 다음 주 연습까지 연습이 끝나는 시간에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셔서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김중자 권사)

교회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무엇보다 구원자이신 주님을 높이 드리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기쁨이 큼니다. (박석의 사모, 엘도 파트장)

찬양을 외워서 부르면서 가사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사를 외워서 부르니 다른 파트의 찬양이 귀에 들어오고 각 파트별로 부르는 찬양이 하나의 하모니가 되어 주님께 바치

는 것이 느껴져 그 은혜에 묻어 날 때도 있습니다.

(권영주 안수집사, 부대장)

찬양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시고자 하는 마음을 들을 수 있고 무엇보다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은혜의 장소로 불러주시며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이지요. (윤석민 장로)

수요 2부 예배와 실로암 찬양대

많은 분들과 모임을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수요일에도 많이 참석하시고 성가대에도 오셔서 함께 은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며 받는 은혜를 여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순도 안수집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살아 숨쉬는 곳, 수요 2부 예배에서 마음껏 누리세요! (김중자 권사)

수요일은 한 주간의 중간입니다. 주일의 은혜가 소진되어 갈 시점이고 따라서 은혜가 필요 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먹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바쁘게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 은혜를 유지하기가 우리의 일만으로는 어렵지요. 그런데 그 은혜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맛을 아는 사람들도 그 맛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의 잔치에 많은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윤석민 장로)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을 드려서서 경건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곳, 실로암 찬양대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이지요. 특히 젊은이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박석의 사모)

심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한결같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못한다. 심자가의 은혜를 넘다 사모하며 찬양하는 실로암 찬양대원들, 그들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주님의 진정한 용사들이다.

(권진실)

다들 주일 찬송

466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존 브라운(John S. Brown)이 지성한 찬송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승은 평안을 노래한 찬송으로 많은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이다.

1절은 '나 어느 곳에 있든지'를 많이 편하다'라는 가사로 시작한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에 의할 때 그 어느 곳에 있어도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주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길 기도한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내가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었다'고 고백하였다.

후렴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강조한다. 주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우리는 '나의 맘 속'에 평안'이라고 힘있게 외칠 수 있다. 막한 죄가 파도같이 물려들더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주님의 심자가가 모든 죄악의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시기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

2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일할 때 영생의 기쁨이 선물과 같이 임함을 찬양한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처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주님은 약속하시며 그 약속에 따라 평안함을 주신다.

3절은 우리에게 약속된 주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귀함을 찬양한다. 그 평안한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단한 마음은 열리고 하늘의 새로운 소망을 부여받게 된다. 그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것이다.

4절은 주님은 이 놀라운 평안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몸으로 친히 감당하셨다. 골고다 언덕의 심자가를 지심으로 새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기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평안 가운데 네가 내게 주시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골고다를 향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 길을 죽도록 충성하며 걸어가 갈 때 주님은 생명의 만류관, 영생과 구원의 만류관을 얻게 하신다.

주님과 함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참된 평안이 임하는 자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평안을 이루시기 위해서 골고다 심자가 행렬로 나아가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함께 심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갈 때 우리의 참된 평안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주시는 평안의 자리를 사모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심자가를 지고 나가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자.

(찬양위원회)

새·가·족·을·환·영·하·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2572	오세영	19	청년1부	조성연(18)	2594	리자키퍼니	19	외선부	이수영(15)
2573	박근홍	15	장년2부	오형철(13)	2595	김은희	8	청년2부	신호재(8)
2574	김대성	1	장년2부		2596	황진	19	외선부	김영은(8)
2575	이성희	16	장년3부	김숙자(18)	2597	조지우	19	외선부	김민희(13)
2576	김수진	19	청년1부	김연석(8)	2598	오민하	19	외선부	김옥숙(10)
2577	김영주	19	청년1부	김연석(8)	2599	후디비자	19	외선부	공노재(19)
2578	이미자	7	장년2부	계영철(15)	2600	알렉산더	19	외선부	김정현(11)
2579	변보현	7	소망부	계영철(15)	2601	김무드라라	19	외선부	백지민(11)
2580	박지현	7	청년1부	계영철(15)	2602	비토로키니	19	외선부	지로갈(19)
2581	김성일	15	청년1부	전상현(8)	2603	이정미	19	청년1부	조한경(1)
2582	김기홍	2	청년2부	신성환(8)	2604	윤보라	19	청년1부	홍현주(19)
2583	김수환	2	청년2부	김옥숙(8)	2605	이홍경	19	대학부	정연희(8)
2584	이경민	19	총무부	이영환(1)	2606	김소주	7	청년1부	김희철(1)
2585	서지현	2	청년1부	서성환(8)	2607	김진숙	7	청년2부	김정희(7)
2586	윤영숙	1	청년3부	이서민(11)	2608	최성은	19	고등부	구명숙(1)
2587	김남기	3	청년1부	양기수(8)	2609	염은순	19	청년1부	박미현(18)
2588	박명숙	3	청년1부	양기수(8)	2610	임민주	19	고등부	류홍희(1)
2589	김진아	3	청년1부	양기수(8)	2611	신문영	19	대학부	
2590	유영미	8	청년2부	홍화희(8)	2612	정환일	19	대학부	류진희(1)
2591	전재규	1	소망부	이영미(1)	2613	한정희	9	무디가	김재순(10)
2592	김현숙	19	청년1부		2614	한효혜	19	청년1부	김정현(18)
2593	배희준	12	청년2부	유성갑(8)					

※ 교회헌회의 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9월 충현 기도의 창

- ① 위임국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건진함을 주소서.
- ② 충성의 모든 청지기과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깨어지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소서.
- ③ 2005년 6월 2,500명 이상의 전교사들이 과송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믿음을 주소서.
- ④ 바벨 들에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 ⑥ 모든 새가족들이 결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한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 ⑦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헌복직자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 ⑧ 교회에 속한 재단(주)·동산·복자들 십자가의 은사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라.

4.서류제출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시문국 ☎ 02-552-8200#403

◆ 2005년도 하반기 수화교실 개강

기 간 : 2005. 9. 25(주일) ~ 2006. 1
시 간 : 15:10~16:30
내 용 : 초급, 중급, 고급
장 소 : 제2교육관 1층 에바다부, 코이
수강료 : 무료(교재비 별도)
접 수 : 에바다부(내선 416번)

자격 : 만19세 이상 남·여 교인
문의 : 02-222-9911

HDI : 0.855 (대전 224번)

원하는 분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목사 고시 정원 (강도사로서 목사 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② 강도사 인허 및 고시 정원
③ 전도사 고시 정원 ④ 목사 후보생 고시 정원(총신대학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입시 지원자)
⑤ 신학 계속 추천 정원 (총신대학 및 총신 신대원 재학생)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12(월)	13(화)	14(수)	15(목)	16(금)	17(토)	18(주일)
성경/기독교	야게르/기조서	전초시/야노스	이성진/최나현	조규찬/이유원	최성규/조영철	이재연/유미스	장 홍시/도기

예배담당 안내 (9/14-9/18)

날짜	예배	찬 양	사 회	기 도	설 교
9/14	수요 I	우리가 지금은 그대 되어도 (호산나 찬양대)	장현민	이혜수	와 보라 (요 1:40-46) 위건환 목사
9/14	수요 II	생명의 빛 (실로암 찬양대)	김준희	박은숙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으로 내어 놓았도 (고전 5:9-13) 강성영 목사
9/16	금요일	7교구/수요 2교회의성/ 아멘 남성 찬양단	류병복		양재복 목사
9/18	주일 I	(예배 전 찬양)	김태석	노영환	그리스도인의 비밀 (고후 6:10) 김용득 목사
9/18	주일 II	주님 별내 개천의 위대하/ 비바를금주(월광주아 오케스트라와 악장)	정 준	김영은	그리스도인의 비밀 (고후 6:10) 이종현 목사
9/18	주일 III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의 / 백새이슬(월광주아 오케스트라)	강 천호	안용욱	그리스도인의 비밀 (고후 6:10) 장현민 목사
9/18	주일 IV	주님 우슬을 내기 들으니/ 열도 이슬인 (아멘 찬양대 솔로리스트)	이희석	최무길	그리스도인의 비밀 (고후 6:10) 최성국 목사
9/18	주일 V	내 주님 입으신 그 웃음의 / 금글주주 (월광주아 오케스트라)	이재영	이종석	그리스도인의 비밀 (고후 6:10) 이창수 목사
9/18	주일 양	충현 장로 찬양단 / 임나무열 찬양대	안치원	이정택	예수스 교회의 부흥 (행 19:8-20) 안건환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II	오전 9:00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
	IV	오후 1:00(국어 동시통역
	V	오후 3:00 (철문이가 드리는 예배)
찬양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금요일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화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출발
금요절야	오후 11:00	금요집회 후 본당 앞출발

선 · 기 · 능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최의철 12.29	고우현 12.29	노영한 12.29	오준권 12.29
윤필성 12.29	이 훈 12.29	남선우 12.29	김경길 12.29
최무진 12.29	이창호 12.29	차진호 12.29	김광 12.29
안종욱 12.29	임두문 12.29	이갑재 12.29	전홍훈 12.29
이정우 12.29	김단용 12.29	한승규 12.29	김영수 12.29
원운철 12.29	이형수 12.29	안동현 12.29	황의만 12.29
최유덕 12.29	이계인 12.29	박득우 12.29	이태식 12.29
오보근 12.29	권민욱 12.29	조종환 12.29	배준식 12.29
이성호 12.29	최희준 12.29	노영한 12.29	박철구 12.29
신상수 12.29	고재승 12.29	김정철 12.29	김영은 12.29
김정환 12.29	김승문 12.29	함철주 12.29	윤석민 12.29
이성현 12.29	김영국 12.29	김지국 12.29	김주 12.29

■ 부목사

이종대 42구	정원민 42구	박인기 44구	류병희 42구	김영훈 42구
여국진 42구	안광득 11구	나영진 11구	정진호 32구	김용득 32구
고광환 42구	위건환 44구	김익환 11구	장 준 32구	임원진 11구
이희식 42구	최희준 42구	하종현 11구	안치원 32구	정종신 32구
양재용 42구	이성진 42구	조규호 42구	최상규 42구	이재영 42구
이경준 42구	이성순 42구	김준희 42구	윤승일 42구	황진섭 42구
정성영 42구	이정훈 42구	김태서 42구	김성훈 42구	

■ 여전지도

신동주 14구	윤관현 14구	한영준 14구	김민석 14구	홍순태 14구
김기환 14구	김재학 14구	안태순 14구	김정진 14구	조옥호 14구
강덕철 14구	최희진 14구	전은희 14구	김영순 14구	김정자 14구
이수경 14구	김경희 14구	이복순 14구	류진희 14구	한성임 14구
임태주 14구	강영미 14구	유미자 14구		

■ 찬양감독 강임구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 전임독창자 김소연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선교관 1층
유아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초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등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등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등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등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등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학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년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III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분	시간	장 소
청년 2부	오후 12:30	제2교육관 2층
장년 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양부	오후 12:15	김길리움
시찰부	오후 11:00	복지전 지하1층
예배마무	오전 9:00(화목) 오후 1:00(성인)	제2교육관 1층
탁구부	오전 9:00~오전 2:00	교육관 110호
색기종양부	오후 12:15	제 배다 리움
출신이런이런	주건교육	교육관 107호
출신재건이런	주건교육	충원복지관
국내재건이런	오후 11:00	아련 룸